

작품 개요

「강 건너간 노래」는 이육사(李陸史, 1904~1944)의 시를 가사로 한 곡으로서 작곡자가 27세 때인 1949년 3월 19일 작곡되었고, 1952년 12월 27일 부산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회 나운영 작품연주회>에서 소프라노 김천애(金天愛, 1919~1995)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곡은 1952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 『아흔 아홉 양』에서 출판되었는데, 현재의 악보는 1977년 7월 8일 수정된 것이다.

작품 해설

이 곡은 선율의 화려함과 화성의 다양함 그리고 복합적인 리듬의 사용과 반주부의 자유분방함 등을 고려할 때 가곡이라기 보다는 오페라의 아리아적 성격을 띤 매우 난해한 작품에 속한다. 특히 작곡 당시의 음악적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상당히 획기적인 테크닉과 고도의 예술성이 강조되었으므로 청중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이 곡은 구성상 3부분으로 되어있다. 전반부인 10마디 안에서 박자는 무려 8번 바뀌어 매 마디마다 변박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율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이는 중반부와 후반부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부의 선율에는 에너지를 절약한 듯한 느낌을 준다. 반주부에는 특별한 유형이 없고 변화화음과 반음계적 화성을 강조하여 바장조의 기본조성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현란함을 보이지만 마디9,10에 나타난 전형적인 V-I 도는 이 곡에서의 조성적인 틀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중간부분은 관계단조인 라단조로 전조되고 솟아오르는 선율과 대조되는 반주부의 하행 반진행 베이스 선율과 리듬이 매우 인상적이다. 후반부는 다시 전반부를 모티브로 하여 반복하면서도 반음계적 전조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박자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후기 낭만파적 인상이 짙은 매우 난해한 곡이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allegretto 2

강진야간 노래

陸史詩
郭進亨 曲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and rests.

바
Pia